

테네시 주립 대학의 공식 뉴스와 소식

공고물 연락처: Tina M. Johnson, 농업/자원 경제학과, 865-974-7418, tjohnson@utk.edu

배포용

2018 년 5 월 10 일

미국 풀브라이트 연구 교수로 임명된 테네시 주립 대학 조성훈 교수, 한국에서 탄소저장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체계를 설계한다.

미국 테네시 주립 대학의 조성훈 교수가 위험과 보상 사이의 균형을 최적화 하는 산림을 통한 탄소저장 인센티브 프로그램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풀브라이트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2018 년 7 월부터 12 월까지 6 개월간 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에 파견되기로 했습니다.

풀브라이트 프로젝트는 앞으로 3 년간 조성훈 교수가 이끄는 미국 농무성(USDA) 산하 국립농업식품연구소의 프로젝트를 근간으로 하며, 산림의 탄소저장을 장려하기 위한 인센티브 프로그램의 최적의 타겟 지역을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는 경제, 금융 및 생태계 모델링의 혁신적인 통합 체계의 설계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산림 조림과 산림 파괴 방지를 통한 탄소저장 프로그램은 기후 변화를 완화시키는 비용 효율적인 방법으로 연구되어 왔습니다.

조성훈 교수는 전통적으로 재무관리에서 이용되는 포트폴리오 이론을 새롭게 생태계 서비스 투자에 적용하여 분산 투자와 위험회피의 목표를 만족시키는 산림 기반 생태계 서비스를 위한 인센티브 지불 프로그램을 구축할 것입니다. 한국 정부가 새로운 탄소 배출권 거래제의 일환으로 산림 탄소를 채택하기로 결정하면 그의 연구결과는 국내 탄소 시장 프로그램에서 거래 될 수 있는 초기 산림 탄소 거래권의 최적화된 지리적 분포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국은 급속한 토지 개발에서 비롯된 생태계 서비스의 손상으로 심각한 환경 문제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조성훈 교수의 연구 대상국으로 전략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한국 인구의 절반 이상이 중국에서 발생하는 공해와 다른 국내원인으로 위험한 수준의 미세 먼지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의 한국에서의 연구 활동에 기대되는바가 큼니다.

그는 연구 활동 외에도 고려 대학교에서 한학기동안 학생들을 가르치고, 고려 대학교와 테네시 대학교의 학술 교류를 도모할 것입니다.

조성훈 교수는 "시장 주도적 접근 방식을 통해 생태계 서비스를 회복하려는 한국의 노력에 도움이 될수있는 기회를 갖게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고 말하며 "국내에서는 생태계와 인간의 경제활동을 모형화하는데 초점을 맞춘 자연과학/인문 분야를 연계하는 연구에 대한 수요가 늘고있기 때문에 이번 풀브라이트 연구가 한국 학계에서 특히 중요하게 평가될것을 기대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생태계와 경제활동을 연계하여 모형화하는 프레임 워크를 통해 한국 학생들이 이러한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라고 덧붙이며 "고려대학교뿐만 아니라 다양한 한국 학생들과 멘토링 및 상호교류를 통해 테네시 대학에서 학위 취득 및 프로그램 참여에 관심있는 우수한 학생들을 모집 할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폴프라이트는 조성훈 교수의 가족과 특별한 인연이 있습니다. 50 여년전에 미국에서 대학원을 위한 한국 폴브라이트 장학금 수혜자중 한명으로 조성훈 교수의 부친이 선정되었으나, 당시 어려운 집안사정으로 항공료를 마련하지 못하여 포기한 경험이 있습니다. 반세기가 지나, 조성훈 교수는 미국 폴브라이트 연구교수로 미국과 한국의 학문적 교류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하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조성훈 교수는 테네시 대학교 농업/자원 경제 학부소속의 자원/환경 경제학자로서 학부/대학원 과정의 자원/환경 경제학 과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는 또한 미국에서 에너지 및 환경 관련 정책 연구기관으로 잘 알려져있는 Howard H. Baker Jr. 센터의 전문 연구원 으로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외에도, 테네시 대학교 의 자원 정책 센터의 교수 위원회직을 맡고 있으며, 미국 동남부 지역의 자원 문제와 관련하여 자원 정책 센터의 다학제적 접근법의 일환으로 공학도, 경제학자, 생태학자, 산림연구학자, 통계학자, 및 지리학자와 협력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성훈 교수는 토지 보전의 생태 및 경제 효과, 농촌 도시 환경에 대한 토지 이용 계획, 환경 친화적 도시화를위한 녹지 가치 평가, 환경친화적 녹색에너지 효율평가, 생태계 서비스의 가치 평가 및 기후 변화에 대한 그들의 영향과 같은 자연 및 인간 시스템의 역학관계에 대하여 86 편의 연구논문 (66 편의 SCI/SSCI 등재 논문)을 출판하였습니다. 이러한 그의 연구는 주로 미국 국립 과학 재단(NSF)의 Coupled Natural and Human Systems 프로그램과 미국 농무부(USDA)의 Agriculture and Food Research Initiative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받고 있습니다. 미국 국립 과학 재단(NSF)이 지원하는 연구는 보호 지역 설립 비용을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두는 반면, 미국 농무부 (USDA)가 지원하는 프로젝트는 개인 토지 소유자로부터 생태계 서비스 혜택을보다 효과적으로 확보하기위한 인센티브를 설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는 현재 미국 동남부에 위치한 Appalachian 산맥의 생물 다양성 보전을 위하여 시장 및 기후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조건하에서 비용 효율적인 환경 보전 보조금의 체계 구축을 다루는 미국 농무성(USDA)지원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습니다.

폴 브라이트 미국 학술 프로그램은 매년 160 개국 이상에서 교육, 연구 또는 복합 교육 / 연구를 도모하는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폴 브라이트수상자는 민간, 공공 및 비영리 분야의 59 명의 노벨 수상자, 82 명의 풀리처상 수상자, 71 명의 맥아더상 수상자, 16 명의 대통령 자유훈장 수령자 및 수천 명의 지도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테네시 대학교는 1789 년 설립된 이래 교육, 연구 및 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실생활의 해결법을 제공하는 데 탁월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조성훈 교수의 연구에 관심을 가지고 있거나 이번 한국방문을 통해 그와 공동연구의 기회를 발전시키기를 원하는 경우, 아래에 있는 이메일이나 전화를 통하여 교류를 나눌수 있습니다.

###

연락처:

조성훈 교수, 865-974-7408, scho9@utk.edu

###

Find the UT Institute of Agriculture on Facebook, Twitter, and YouTube:



###

테네시 대학의 교수이자 연구원인 조성훈 교수가 미국 풀브라이트 연구 교수로 임명되어 위험과 보상 사이의 균형을 최적화 하는 산림 중심의 탄소저장 인센티브 프로그램의 체계를 설계하기 위해서 2018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고려대학교 식품자원학과에서 파견되기로 했습니다.